

글말 교실 소감문

20230815 유하연 (경제학과)

들었던 글말 교실 특강 중에 7회 차인 '힘 있는 글을 위한 문장 만들기'내용이 내게 큰 인상을 주어, 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나의 삶 속에서 일기, 각종 소감문,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글을 쓰는 시간은 참 많았었다. 특히 대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몇 십 번씩 수정을 반복하면서 "왜 내 글은 자연스럽게 않지?", "어떻게 글에 강조를 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에 대한 완벽한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답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성찰했던 부분은 내가 글을 쓰면서 항상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친구에게 쓰는 편지나 나만 볼 수 있는 일기 같은 비공식적인 글을 쓸 때에는 지니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소감문이나 공모전 같은 공식적인 글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나의 글 수준이 높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지니면서 글을 썼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라는 특강 내용 중에서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다면 쉬운 말로 풀어서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강조하여 스스로 성찰했다. 나도 뉴스 기사 혹은 책의 글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읽기 싫어지는데, 겉으로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어렵게 쓰는 글은 글 자체를 꾸미는 행위밖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의 글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결심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내용은 영상 속에서 소개한 PREP형 글쓰기이다. PREP형 글쓰기는 Point(주장, 결론)->Reason(이유)->Example(구체적 예시)->Point(재 진술)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기사 혹은 보고서에서 이 형식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이전에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글이 어색하다고 느꼈었는데, 특강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나의 글은 틀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색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이제 PREP형 글쓰기를 알았으니 글을 쓸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틀을 정해놓고 글의 흐름을 잡으며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특강을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줘서 좋았고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간결하면서 핵심을 잘 잡아낸 피피티이다. 나는 강의를 들을 때 청각보단 시각이라는 감각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표 자료, 즉 피피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피피티 중에서 밑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언급해 주시는 부분이 좋았고 그 덕분에 메모하며 듣기도 편했다. 그리고 강의하실 때 하나의 내용을 오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소주제 여러 개를 각각 간결하게 핵심만 언급해 주셔서 1시간 넘는 강의에도 계속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중간중간 문제를 내고 강의를 멈춰서 혼자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내용도 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도 또다시 글을 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시간을 갖게 해주고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마지막 4부에서 “많이 읽고, 많이 써라”라는 소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특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았고, 내가 이 특강을 듣길 잘했다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소감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글쓰기에 포함되는데, 평소의 나였다면 “나보다 글 잘 쓰는 사람 훨씬 많겠지” “나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비교만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각종 글쓰기 공모전에 도전조차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즉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책을 읽을 때도 한 권을 꾸역꾸역 읽기보다는 시선이 계속 글을 따라가게 하는 책을 찾아서 여러 권 읽으라는 현실적 조언들이 담긴 특강 덕분에 글쓰기가 부담스럽다고만 느껴지지 않고 글에 힘을 담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